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광의 약속과 함께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학개 2:1-9]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 칠월 곧 그 달 이십 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3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4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찌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찌어다 나 여호와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노라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찌어다 6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노라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노라 9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노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노라

살다 보면 현실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전재건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재건공사를 마쳤을 때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서 낙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일에 집중하라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광의 약속과 함께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1, 과거의 문제- 오늘 설교본문 3절에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 때문에 낙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성전을 전에 있던 솔로몬의 큰 성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현재의 처지를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나온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보다 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교회가 더 충만했던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위대하거나 웅장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라도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계속 일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2, 현재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현재 주어진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두려워말며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주어진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그분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미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계속 일하도록 힘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 차고, 만국의 보화가 그 안에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 에스라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성취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통해 이뤄집니다. 예수님 그 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예언의 성취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계질서를 뒤엎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미래입니다. 미래엔 성전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많은 어려움을 마주쳐야하는 우리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